

# 한국불교 전통문화공연의 미디어 활용과 현대적 의미 연구

- 1920~70년대 불교단체 및 사찰의 불교연극을 중심으로

허정철\* 이종훈\*\*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과정

\*\*대덕대학교 연극영상과 교수

e-mail : shutup0520@naver.com

## A Study on the Media Utilization and Modern Meaning of Korean Buddhism Traditional Culture Performance

Jung-Chul Heo\*, Jong-Hoon Lee\*\*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 Contents Dongguk University, Seoul

\*\*Dept. of Department of Theater & Film Daeduk University, DaeJeon

### 요 약

한국불교사에서 근대불교는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다. 특히 일제의 주권 침탈 속에서도 지역 전통사찰과 불교단체들은 불교연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스님과 불자들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한국불교 전통성과 전통문화를 지키려고 했다. 이에 본고는 근대에서 현대까지 한국불교계가 문화공연을 매개로 대중과 소통하는 미디어로서의 속성과 현대적 의미를 고찰한다.

### 1. 서론

한국불교사에서 근대불교는 대략 19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를 말한다. 왕조체제를 청산하고 근대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친 이후부터 일본의 지배까지 해방된 시기다. 특히 일제의 주권침탈 등 질곡의 한국근대사로부터 불교도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조선불교회와 불교청년회 등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각황사(현 조계사), 순천 송광사, 양산 통도사, 부산 범어사 등 지역 전통사찰에서는 불교연극 등 전통 문화공연을 통해 스님과 불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한국불교 전통성과 전통문화를 지키려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근대에서 현대까지 한국불교계가 문화공연을 대중에게 새로운 것을 알리고 소통하는 미디어로서의 속성을 사례를 통해 고찰한다.

### 2. 일제강점기 불교단체의 문화공연

1905년 을사늑약조약 체결 이후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해 식민지로 강

점했다. 국권 상실은 당시 불교계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sup>1)</sup> 일제는 1911년 제정 반포한 ‘사찰령’<sup>2)</sup>과 그 시행 규칙을 통해 한국불교의 행정체계를 조선총독부에 종속시키고 승려의 세속화를 권장하면서 그 전통을 붕괴시키려고 했다.

당시 불교계 주류는 이 같은 조치를 수용, 인정하며 ‘식민지 불교’라는 명예를 짊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조국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를 사는 ‘조선불자’들의 비통한 마음과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려고 했던 청년승가와 청년 불자들의 투혼이 빛을 발했다.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과 박한영 스님(1870~1948) 등은 일제의 압력에 의해 임제종 간관을 내린 후에도 ‘조선불교회(朝鮮佛教會)’의 조직을 통해서 불교의 자주적 발전을 모색하고자 했다.<sup>3)</sup>

1) 조계종,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2007, 124쪽

2) 일제는 1911년 6월3일 ‘사찰령’을 제정 반포하고, 그 시행 규칙은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내정의(寺內正毅)가 불교학자였던 도변창(渡邊彰)으로 하여금 작성케 했다. ‘사찰령’ 등의 실시로 법통(法統)의 전승이 중시되어야 할 본말사(本末寺)의 관계가 행정적인 조직이 됐고, 주지는 총독부의 지배를 받는 관료가 되어 버렸다.

특히 조선불교회는 당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려운 한문 대신 쉬운 한글을 택한 불교종합지 ‘불일(佛日)’을 창간했고, 정기적으로 서울 각황사(현 서울 조계사)에서 불탄기념일(현 부처님오신날) 맞이 불교공연을 열며 대중과 소통했다. 당시 동아일보 1920년 5월27일 3면 ‘覺皇寺(각황사)의 佛誕紀念會(불탄기념회)불탄기념회’란 기사를 살펴보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불교회 주최로 성대한 불탄기념회가 있었다. 각황사 너른 뜰에는 수십 개의 줄등을 찬란히 빛 쏘이고 정문 맞은편에 높이 설치하여 미리부터 성황을 예측케 했으며…모든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불극(佛劇) 수하강마상(樹下降魔相)은 매우 의장이 교묘하고 조직이 기발한 중에도 숭엄한 석가의 위엄 있는 행동을 나타내며 만장의 대갈채를 받고…”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묘사한 그림 ‘팔정도’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악마의 항복을 받는 모습이 바로 ‘수하강마상’이다. 이 기사에서 밝혔듯이 부처님의 위엄 있고 숭고한 모습을 표현한 연극에 당시 각황사를 찾은 대중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불교연극은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위신력과 역대 조사들의 신이한 행적을 추모·찬양하기 위해 실연됐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아가 불교연극은 승속 간의 예술적 충돌과 오락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연됐다. 흔히 말하는 유희본능에서 뿐만 아니라 수행과 신행과정의 갈등과 억압에서 해탈·승화되기 위해 즐겁고 감명 깊은 연극이 필수될 수밖에 없었다.<sup>4)</sup> 나라를 잃은 상실감 속에 왜색불교가 판을 치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조선불교회가 무대에 올린 불교연극은 단순한 신앙과 오락을 넘어 시대적 아픔을 치유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 되기에 충분했다.

이와 더불어 1919년 3·1운동 이후 불교계는 국내 불교교육의 실행 등으로 한국불교를 주도할 청년 조직인 ‘조선불교청년회’가 1920년 각황사에서 창립됐다. 현재 전하는 자료가 부족해 자세히 연구된 바 없지만, 간략하게 전해지는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봤을 때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지회를 갖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역시 각 지회별로 연극 등 문화공연과 강연회, 토론회 등을 통해 대중들을 모아 사회계몽 내용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sup>5)</sup>

동아일보는 1921년 5월19일 4면 ‘釋迦降誕紀念演劇(석가장탄기념연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석가 세존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 부산 동래 범어사에서 불교청년회 구어지회 주최로 ‘고진감래’라는 제목으로 소인연극(素人演劇, 비전문 연극)을 흥행하였는데, 그 연극은 위생, 교육, 종교 등의 의미를 포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 1921년 7월13일 4면 ‘佛教傳道八相演劇(불교전도팔상연극)’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순천군선암시불교청년회에서는 불교전도의 목적으로 연극단을 조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김천 직지사 조실을 지낸 정혜(正慧, 1890~1947)스님은 1935년 조선불교성극순례단을 꾸려 순회공연에 나서기도 했다. 직지사예 모셔져 있는 스님의 비문에는 이 같은 행적이 자세히 담겨 있다.

“스님의 敎化(교화) 가운데 자못 이채로운 것은 演劇(연극)을 통한 傳法(전법)이다. 1935년 9월부터 11월까지 스님은 朝鮮佛教聖劇巡禮團(조선불교성극순례단)을 꾸려 대구를 시발로 김천, 상주, 경주, 포항, 예천, 안동, 울산, 초량, 김해, 밀양 등지를 순회하며 4막 7장의 <佛陀의 一代記(불타의 일대기)>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다. 이 공연에는 空超(공초) 吳相(오상순) 선생이 함께 참여하였으니, 연극이 단지 허울만이 아니었음을 推察(추찰)할 수 있고, 가는 곳마다 성황을 이루었다는 신문기사가 빈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극이 일상사처럼 가까워진 오늘날에도 쉽게 손대지 못하는 일을 그 캄캄하던 시절에 실행에 옮긴 스님의 앞선 발걸음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sup>6)</sup>

### 3. 지역사찰의 문화공연

불교단체들의 불교연극과 함께 지역 사찰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스님들이 사찰로 귀국해 유학 당시 배운 서양악기를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연을 통해 선보인 사례도 눈여겨 볼만하다.

3) 김상현, 「1910년대 한국불교계의 유신론」, 불교평론, 2000년, 357쪽

4) 사재동, 『한국의 고전과 공연예술』, 소명출판, 2018. 238쪽

5) 이성진,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불교신문, 2018.11.19

6) 임연태, ‘부도발 기행 62 전성성불의 도량 직지사’, 현대불교신문, 2011.10.19



그림 1 1930년대 순천 송광사 용화당앞에서 서양악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스님들. 출처=송광사성보박물관

“공개된 사진 가운데 흥미를 끄는 또 하나는 1930년대 송광사 용화당(龍華堂) 건물 앞에서 촬영한 악대(樂隊)의 모습이다. 큰북과 트럼펫, 심벌즈 등을 든 스님들이 용화당 앞에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다. 그동안 사찰에서 서양악기를 연주하는 악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해방 이전에 송광사에서 스님으로 있다가 환속한 최성후 옹은 “일제강점기 송광사에서는 주요행사 때 악대가 연주를 했었다”면서 “특히 사찰에서 제(齋)를 지낼 때도 고적대가 연주를 실시했다”고 회고했다.”<sup>7)</sup>

조계총림 송광사 박물관장 고경스님이 지난 2009년 6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 당하는 스님들의 환송장면을 담은 사진과 함께 공개한 사진 속에 당시 유학생들이 트럼펫 등 서양악기를 들고 찍은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들은 송광사가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스님들로 귀국이후 사찰 주요행사에서 고적대가 연주를 선보이며 큰 호평을 얻었다. 특히 사찰에서 당시 신문물인 서양악기를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연 형태로 보여준 점은 불교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불교계 안팎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 4. 해방 후 지역사찰의 문화공연

이처럼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연극 등 문화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려고 했던 불교계의 노력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역 사찰을 중심으로 계승됐다.



사진설명: 60~70년대 통도사 스님들은 마을주민들을 위해 연극공연을 하곤 했다. 공연복장을 하고 촬영한 모습(사진 오른쪽이 흥법스님).

그림 2 출처=불교신문

1960~70년대 양산 통도사의 스님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연극공연을 했다. 위의 사진은 당시 통도사의 대표적인 학승으로 꼽히는 흥법(弘法, 1930~1978)스님 등이 공연복장으로 촬영한 사진이다.<sup>8)</sup> 불경 속의 극적인 법화를 인용, 부연해 해설과 대화로 강설하고 유효적절하게 계승, 불가를 가창하며 온갖 행동, 표정을 지어냄으로서 완벽한 강창극을 연출할 수 있었다.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연극은 당시 문화공연을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 주민들에게는 종교를 초월해 오락 이상의 경험을 선사했을 것이다.



그림 3 1972년 양산 내원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연극을 하고 있는 모습 출처=불교신문

또한 당시 사찰의 불교연극은 비구 스님들이 주류를

7) 이성수, ‘근세불교 미공개 자료를 찾아’, 불교신문, 2009.6.10

8) 이성수, ‘근세불교 미공개 자료를 찾아’, 불교신문, 2003.3.8

이뤘지만, 비구니 스님들도 배제되지 않았다. 불교연극은 포교의 일환이고, 그 내용 역시 불교적 서사물이 많았던 만큼 사명감과 함께 강창의 능력만 있다면 비구니라도 여성층을 상대로 연기자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9)</sup> 통도사 말사로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는 명찰로 꼽히는 양산 내원사도 1970년대 불교연극을 문화공연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때의 관람객은 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주축을 이루지만, 비신자인 일반인들도 상당수 모여 들었다. 포교를 목적으로 하지만, 연극으로서는 흥미로운 구경거리로서도 손색이 없었다.

## 5. 결론

이처럼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해방 후 1970년대까지 불교단체와 지역 사찰에서 문화공연을 중심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미디어로 활용한 사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불교연극이라는 대중적인 문화장르로 당시 대중의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도를 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정혜스님의 ‘조선불교성극순례단 활동과 관련 당시 동아일보는 1935년 9월24일자에서 ‘불교도와 연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조선불교사상에 있어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불교도가 교이홍포(敎理弘布)의 수단을 연극에 발견했다는 것은 시기에 적합한 착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이 상당한 실효를 거둘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라고 극찬했다. 당시 대표일간지인 동아일보도 지역 불교계 인사가 직접 꾸린 연극단에 대한 기대를 표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교 내 사업만 된다할지라도 불교도에 게 좋은 일이겠다. 하지만 우리(일반 대중)로서 볼 때는 이 극단이 장구성을 갖기 위해서나 가급적 현재의 방침에서 벗어나 넓은 범위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가진 레퍼토리를 취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극단관계자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칼럼의 저자는 찬사와 함께 종교예술단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 틀에서 벗어나 대중적인 문화단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84년 전 일간지 칼럼이지만 이 같은 지적은 현대 불교계 문화공연에도 적용할만한 조언이다. 당시 불교계는 일제강점기 등 시대적 한계에서도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 게 전해주고 싶은

욕망’ 즉 미디어의 기본적인 속성에 충실하며 교세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기술발전으로 미디어의 환경의 변화는 불교계 문화공연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불교연극으로 시작한 불교계의 문화공연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음성·문자·그림·동영상 등의 다양한 형식의 정보가 혼합된 매체 멀티미디어(multimedia) 시대에는 콘텐츠에 대한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현재 산사음악회, 불교영화 및 연극, 뮤지컬 등 불교계 문화공연은 기술적 진보와 장르의 세분화는 이뤘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한계로 지적한 “넓은 범위의 사회문화적 의의를 가진 레퍼토리를 취할 준비가 됐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대 상업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며 단순한 콘텐츠로 다른 장르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불교 전통공연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통해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불교식 문화공연’을 찾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가 향후 불교계의 문화공연 활성화를 이끌 열쇠가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조계종,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2007, 124쪽  
 김상현, 「1910년대 한국불교계의 유신론」, 불교평론, 2000년, 357쪽  
 사재동, 『한국의 고전과 공연예술』, 소명출판, 2018. 238, 251쪽  
 이성진, ‘불교계의 3·1운동과 항일운동’, 불교신문, 2018.11.19.  
 이성수, ‘근세불교 미공개 자료를 찾아’, 불교신문, 2003.3.8., 2009.6.10.  
 임연태, ‘부도발 기행 62 견성성불의 도량 직지사’, 현대불교신문, 2011.10.19

9) 사재동, 『한국의 고전과 공연예술』, 소명출판, 2018. 251쪽